

6/18(토) 말라기 묵상 3

말라기 2:1-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제사장과 유다 백성의 죄를 다루었고 오늘 묵상하는 말라기 2장 1-9절 말씀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만 거론됩니다. 구조적으로 1:6-9절은 '제사장들의 죄', 1:10-14절은 '백성들의 죄', 그리고 2:1-9절은 '제사장에 대한 저주 심판과 제사장의 바른 직무'를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타락

말라기의 말씀이 선포하는 일차적인 독자는 5세기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언급한 드린 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지에서 새롭게 그들이 정착한 도시와 안정된 삶을 떠나서 황무지가 된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 진지 약 90년 가까이 즉 한 세기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외적으로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이 모두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러가지 타락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회와 민족의 타락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들 중에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입니다. 유럽의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이전 즉 중세 말기를 돌아 보면 당시에 교회와 사제들의 타락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1세는 16세기 초 베드로 성당의 건축헌금을 위해 면죄부를 만들어서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도록 판매합니다. 또 당시 교황이 정부와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사제들을 위한 집장촌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타락합니다(예, 루터 영화). 이처럼 5세기 당시의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스마야를 비롯한 일부 유다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또 성벽 재건의 휘방꾼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사돈 관계를 맺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느 6:18-19,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제사장들은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등등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 심판

오늘 본문은 이들 제사장들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2절,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미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내린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주의 곁을 떠나 있을 때에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행위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심판은 시작됩니다(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집에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처음에는 부모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즉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말과 행실이 거룩하고 모두 같았던 그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 그 때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기 위함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문은 제사장들의 바른 직무를 교훈합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회자들만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을 율법의 말씀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좌우로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수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영국 기상청의 연구에 따르면 2022~2026 년이 기록적으로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 년 동안 지구 온도는 1°C 내외로 상승했으며, 2016 년과 2020 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되었다. 과학자들은 약 1°C 의 온난화로 인해 작년에는 북미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산불이나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을 강타하고 있는 극심한 폭염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극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향후 5 년 동안 온난화의 영향이 더 커져 장기적으로 평균 온도 차이가 3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상 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직면해 있음을 함께 인식하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과 목표를 잘 실천하고 또한 기후 재난에 취약한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영유아부, CM, YG, 청년부).
-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각 구역에 속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